

■ 법률 칼럼

영주권 갱신과 범죄 기록

영주권 갱신을 준비하면서 범죄 경력 이 영주권 갱신 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영주권 갱신은 현재 본인이 영주권자라는 것만 증명하기만 하면 별 문제 없이 갱신이 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에게 심각한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 영주권 갱신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가정 폭력, 아동학대, 살인, 심각한 상해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 절차와 별개로 갱신 신청자에게 추방재판 출두 명령서가 발부되어 추방재판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영주권 갱신을 하는 경우, 본인이 관련된 범죄가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1996년에 개정된 이민법에 따르면 미국 입국 후 (또는 영주권을 받은 후에) 가정 폭력, 아동학대 아동유기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시민권자를 제외한 누구나가 경/중범죄를 불분하고 실행 여부에 관계없이 추방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개정 이민법이 1996년 9월 30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죄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위에 언급한 범죄가 있다면 그 범죄가 어느 시점에 저질러진 것인지를 잘 판단해 본인이 추방 대상이 되는지 따져보기 바랍니다. 만약 위의 범죄를 1996년 9월 30일 이후에 저질렀다면 영주권 갱신 시에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큰 흠결이 되는 범죄 (Moral Turpitude Crime)의 경우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주권 갱신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범죄는 살인, 강간, 절도, 사기, 배우자 폭행, 납치,



아동학대 등이 포함됩니다. 이 도덕적 흠결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실제 형량이 6월 미만이고 최고 형량이 1년 미만인 Petty Crime을 제외한 그 이상의 실제 형량과 그 이상의 최고 형량이 가능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영주권 갱신 시에 추방재판의 대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은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이 자동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이민국 시스템상으로 여전히 영주권자입니다. 단지 본인이 영주권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영주권이 없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갱신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법체류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을 잘 참고해 영주권자가 된 이후 형사법적인 범법 사실이 있는 경우 영주권 갱신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범법 사실이 이민법상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랍니다.

사진=shutterstock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전문의 칼럼

역류성 식도질환의 관리와 치료

역류성 식도질환의 증상과 진단에 대해 살펴본 지난 칼럼에 이어서 이번에는 치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던 과거에는 역류성 식도질환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한 육식 위주의 기름진 음식과 더불어 과체중, 비만으로 인한 복부 압력의 증가로 식도 역류가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역류성 식도질환은 만성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질환으로 생활습관 교정이 아주 중요한 치료 중 하나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금연을 하여야 하고, 위 식도 역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카페인, 초콜릿, 매운 음식, 고지방 음식, 탄산음료)을 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잠을 잘 때는 상체 부위를 약간 높게 하고 꼭 끼는 옷을 피하여야 합니다. 침대 머리쪽 다리받침에 작은 블록을 끼워 놓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쐐기(wedge)모양의 베개를 사용하면 쉽게 상체 부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후 눕는 자세를 피하고, 수면 2-3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 감량도 복압을 낮추어 주어 증상을 완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생활 치료 중의 하나입니다.

생활 습관 변화로 증상이 충분히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역류되는 위산의 농도를 낮추는 약물 중에 펩시드(Pepcid) 등의 H2수용체 길항제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할 경우에는 오메프라졸, 벡시움, 텍실란트, 판토프라졸 등의 양성자펌프억제제(PPI)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PPI의 경우는 오랜 공복 후 복용할수록 효과가 좋기 때문에 주로 하루 첫 음식을 먹기 30-60분 전

에 복용하는 걸 권유합니다.

또한 PPI는 증상이 있을 때마다 복용하는 것보다는 한 번 복용하면 2-4주간 매일 복용하는 것이 증상 조절이나 손상된 식도의 회복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PPI는 장기간 복용할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꼭 필요한 경우와 기간에만 복용을 해야 합니다.

PPI는 위산의 분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B12, 철분 등의 미네랄 성분의 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 흡수 감소와 골분해 작용의 활성화로 인하여 골밀도의 감소 및 그로 인한 골절 위험도의 증가도 일어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밖에 여러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치매의 위험 증가에 대해서도 연구되었는데 아직까지는 일관된 결과가 있지는 않지만 유의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듯 PPI는 역류성 식도질환에 아주 효과적인 약물이지만 장기복용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필요한 기간만 복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약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주치의와의 상의를 통해 부작용이 적은 H2수용체 길항제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역류성식도질환의 관리와 치료에 중요한 것은 약물을 사용하더라도 앞에 서술한 생활습관의 변화는 항상 동반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입니다.

김성현 내과 보드전문의
(714) 562-9139
6131 Orangethorpe Ave, #150A
Buena Park, CA 90620





사장님,
칭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323)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